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무역위원회의 반국가적 행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오락가락을 거듭하던 무역위원회가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앞으로 2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추가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으리라 생각되고, 소다회 반덤핑 심의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무역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3년1월부터 반덤핑 공방을 벌이기 시작해 6년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반덤핑 연장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고심해야 하는 문제이고, 2000년 봄부터 여름까지 진행된 한-중 마늘분쟁에서 보았듯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결정은 곧바로 무역보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가부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무역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나 결정과정에서 보인 무역위원회의 행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신이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고, 추락된 위신을 바탕으로 계속해 반덤핑을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무리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어느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2000년5월 이미 종료됐다. 1993년12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1997년 1차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니 무려 6년동안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료시점까지 심의 및 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양화학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신청한 시점이 1999년 11월15일이었으니 무려 11개월동안 심의를 계속한 것이다.

1차 및 2차에 충분히 심의해 결정했다면 3차 심의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개월간 심의하게 돼 있는 관련규정을 내팽개침은 물론 관세법을 개정해 최종결정 때까지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토록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또 한가지는 6월14일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던가 아니면 기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15일, 8월15일, 9월15일로 계속 연기하더니 또다시 10월11일, 14일로 연기한 끝에 10월16일 결정문을 발표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해산했다는 점이다. 아셈회의가 끝난 후에 공식 발표하겠다는 비공식 언급을 끝으로… 왜 결정시점을 그토록 연기했는지, 또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동양화학의 입장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아니면 무엇이 그리 떳떳하지 못해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2년간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못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심의과정이 공정했고, 심의 및 결정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아셈회의를 의식하고, 또 10월17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주룽지 총리를 의식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이다.

무역위원회는 1차연장 심의에서 인디아산 소다회를 소다회 원가산정의 비교대상으로 결정함으로써 공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동양화학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원가나 산업정책이 전혀 상이한 인디아산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 비교대상으로서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서 6월14일 개최된 무역위원회 회의에는 중국기업들이 모두 불참했고, 제소기업인 동양화학과 국내 최대 수요처인 로디아 코프랑, 수입기업 삼성물산만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공정성을 잃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국내 소다회 소비규모는 1998년 기준 1375억원으로 동양화학이 27만4000톤(53.0%), 수입제품이 24만2000톤(47.0%)을 차지했다. 그러나 수입의 대분분은 미국 ANSAC이 수출한 것이고, 중국 및 동유럽산은 시정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SAC이 유럽에는 소다회를 덤핑수출하면서 한국에는 정상가격에 수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양화학의 자회사 OCI Chemicals은 미국의 소다회 수출카르텔 ANSAC의 회원사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화학저널은소다회반덤핑과관련해무역위원회와공개토론회를개최할것을제의한다.

<화학저널 2000/10/23 · 30>